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26
----------	------

발의연월일 : 2024. 8. 27.

발 의 자 : 박주민 · 전재수 · 이병진
김준혁 · 한창민 · 이기현
염태영 · 윤종균 · 박해철
김 윤 · 조 국 · 서영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및 문화시설에는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 6의3.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7. (생략) ② ~ ⑤ (생략)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 ----- ----- ----- ----- ----- -----. 1. ~ 6의3. (현행과 같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10.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